

화기삼의 효능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소
(2006년 8월 10일 접수; 2006년 9월 14일 수리)

A Study on the Cooling Effect Claim & Development Procedure of the American Ginseng

Dong-Phil Le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Korea
(Received August 10, 2006; Accepted September 14, 2006)

Abstract : The American ginseng is getting popular in the world market with cooling effects. This paper study history of the cooling effect of American ginseng. Most references include one's assertion on the cooling effect of American ginseng based on the old chinese believe. However, American ginseng was discovered in 1716 and export to China from mid 18 century. Concerning on the time period for clinical demonstration to get people's believe, it is not sufficient to conform the cooling effects of American ginseng. That is why the American ginseng was sold as an inferior goods compare oriental ginseng until mid 1970s. United State FDA also does not certify any effectiveness of Ginseng yet. However, it is important to study on the American ginseng because of rapid growth in the world ginseng market.

Key words : american ginseng, warming effects, cooling effects, discovery of american ginseng

서 론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한 화기삼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즉 2004년 홍콩시장에서 재배삼 수입량 3,611톤 중 91.5%를 캐나다(3,082톤)와 미국(268톤)이 수출하고, 같은 해 홍콩이 수입한 전체 야생삼 27.5톤의 대부분인 27.4톤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¹⁸⁾. 더구나 진삼가격을 비교하면 300g당 고려인삼이 25~30달러인데 비해 화기삼은 30~33달러(농산물유통공사, 해외시장동향, 2004)로 우리나라 백삼보다는 오히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화기삼의 물량이나 가격에 있어서 약진은 인체의 열을 낮춘다는 화기삼의 효능을 바탕으로 시장개척을 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화기삼산업 실체를 저가의 물량공세 정도로 낮게 평가하거나,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화기삼은 인삼도 아니다”라는 등 피

상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홍콩시장에서 화기삼 점유율의 증가나 중국에서 화기삼 생산추세를 볼 때 화기삼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단순한 저가 공세와 “고려인삼은 열을 올린다고 허위사실을 선전한 결과”로만 폄하하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화기삼에 대한 효능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옛날부터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고, 화기삼은 열을 낮춘다”라고 하더라는 주장의 근원이 과연 언제부터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서 화기삼 재배 및 수출역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화기삼에 관한 선행연구와 참고문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지만 화기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기삼의 생산과 효능주장

세계적으로 인삼(Panax)속의 식물은 6~7종이 알려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재배되어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삼은 크게 속(屬)명과 종(種)명이 ‘파낙스진생(Panax Ginseng)’인 동양삼(또는 아시안 진생, 고려인삼, 중국삼)과 속명은 ‘파낙스’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
(전화) 02-3299-4342; (팩스) 02-960-0163
(E-mail) ldphil@krei.re.kr

이지만 종명이 다른 화기삼(또는 서양삼, 미국삼)과 중국 남부의 운남성, 광서성에서 재배되는 전철삼, 일본에서 재배되는 죽절삼외에도 베트남삼, 히말라야삼 등이 있으며, 그리고 속명과 종명 모두가 전혀 다른 식물인데 어찌다 '진생'이라 부르는 시베리아진생(*Eleutherococcus Senticosus*), 캘리포니아진생, 오레곤진생, 인디안진생, 브라질진생 등이 있다. 그러나 동양삼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물분류^[1]상 종(種)의 이름이 달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진생(ginseng)'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김새에서도 사람의 모양을 닮았다는데서 비롯된 용어인 '인삼(人蔘)'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기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2].

화기삼의 경우 크게 야생삼과 재배삼으로 나눌 수 있다. 야생삼은 순수하게 야생에서 자란 것을 채집하는 것과 야생의 서식환경에 파종을 하되 수확할 때까지 별다른 비배관리를 하지 않는 반야생삼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반야생삼도 야생삼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재배삼은 숲속에서 재배하지만 묘판을 만들어 씨앗을 뿌리거나 묘삼을 심고 약간의 관개, 방제, 시비 등의 관리를 하는 숲재배삼과 밭에서 다른 작물과 같이 재배하는 일반재배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야생삼은 애팔래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30여개 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재배삼은 미국 위스컨신의 마라톤카운티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재배삼의 90% 이상이 위스컨신주 마라톤카운티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워싱턴과 오레곤 등 서부지역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화기삼을 재배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



자료: Argus et al., *North American Ginseng Distribution*, 일부수정 (1982~'87)

Fig. 1. Production Area of the American Ginseng

자 1980년대 초부터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서도 삼 재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인삼의 효능은 “양기를 돋우는 것으로 알려진 동양삼과는 달리 화기삼은 음기를 돋우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 살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이 먹으면 좋다”는 식으로 차별화하고 있고,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백삼과 홍삼의 성질을 비교하여 음과 양이란 체질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백삼으로 거래되는 화기삼이 이 논리를 기초로 동양삼, 특히 “고려인삼은 노약자들이나 더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하니 안전한 화기삼을 복용하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즉 “동양삼은 몸이 차거나 맥이 느리고 소화불량인 사람에게 음기보충제(yin tonic)로 겨울에 사용기 때문에 여름에 습기가 많고 더운 동남아시아에서 화기삼을 선호한다. 한편 화기삼은 몸이 뜨겁고 맥이 빠르며 밤에 땀이 많은 사람에게 양기보충제(yang tonic)로서 처방된다. 화기삼은 탈수된 환자에게 체액을 만들게 하고, 기침을 진정시키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전반적인 허약한 신체를 개선시킨다. 또한 몸을 시원하게(cooling)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 복용한다. 더구나 약효가 강한 동양삼에 비해 순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들에게는 화기삼이 좋다”고 한다^{3, 5, 10, 17}. 이와 같은 주장은 FDA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인삼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하면서 무분별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1716년에 프랑스 선교사 라피토(Joseph Francois Lafitau: 1681~1746) 신부가 캐나다 몬트리올부근에서 야생삼을 발견하기 전까지 화기삼의 정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라피토신부가 화기삼을 발견하여 이로쿠스부족(Iroquois Six Nation)의 모하크(Mohawk) 인디언여자에게 보여 주었던 자신들이 사용하던 고유의 약 중에 하나라며 즉시 사용법을 설명하였다고 한다⁸). 이는 비록 오늘날과 같은 '진생(ginseng)'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는 달랐다고 하더라도 서양사람들이 미국대륙에 도착하기 전부터 토착 인디언사회에서 의약품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국과 무역을 하기 전 미국 인디언들은 화기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을까?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출산촉진은 물론 지혈, 해열, 통증해소, 구토방지 등 다양한 용도로

[1] 화기삼의 식물분류는 [식물계(plantaе)-문(magnoliophyta)-강(magnoliopsida)-목(apiales)-과(araliaceae)-속(panax)-종(quinquefolius)]으로 고려인삼과는 종이 다른 유사한 식물임.

[2] 식물 종의 명칭이 엄연히 퀸코포리움(*Quinquefolium*)인 화기삼이 어떻게 '진생'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과 거래되면서 '화기삼(American Ginseng)'이란 상품명으로 유통되고, 최대의 주산지인 위스컨신의 경작자들도 Ginseng Board of Wisconsin을 '화기삼 농업총회(花旗蔘農業總會)'로 표시하고 있다.

Table 1. Usages of American Ginseng by Indian Tribe

인디언 부족	화기삼의 주요 용도
Crow	출산촉진(facilitate child birth)
Cherokee	두통(headaches), 근육경련(muscle cramps), 생리통(menstrual cramps) 해소
Creek	지혈(stop bleeding), 목 아픈 것(sore throats) 해소, 해열(reduce fever)
Houmas	구토방지(stop vomiting)
Iroquois	전반적인 건강증진(promote overall health), 실신한 후 깨어남(revive after a person fainting)
Meskwakis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력 개선(improve overall health and mental powers)
Mohawks	해열(reduce fever)
Penobscot	여성의 출산력 증진(increase female fertility)
Pottawatomis	눈과 귀의 통증 해소(relieve earache and sore eye)
Sac-Fox	전반적인 건강개선(improve overall health)
Seminole	호흡을 쉽게 함(ease breathing)
Seneca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강화(strengthen overall health of the elderly)

자료 : Winifred Conkling, *Secretes of Ginseng*, p.18 재정리 (1999)

사용되었다. 그러나 건강증진 외에는 공통적인 용도를 찾아보기 어려워 인디언 부족 간에도 인삼은 어떤 특정질병에 대한 처방보다는 ‘만병통치약’이란 어원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초기 개척과정에서 정착자들의 부족한 의약품이나 의사를 대체하는 가정상비약으로써 화기삼을 널리 사용하였다. 더구나 어느 시점에 있어서 인디언이 화기삼을 사용하였더라도 어떤 용도가 원래 인디언들이 사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서양이민자들로부터 배운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일¹⁷⁾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사용한 화기삼의 용도에 기초해서 오늘날 인체의 열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화기삼의 효능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이다.

1842~1882년 기간 중 미국에서는 화기삼을 공식약전(official list of pharmaceuticals)에 등재하여 건위제(stomachic)나 흥분제(stimulant)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사용하였다¹⁸⁾. 그러나 식물성약재가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많은 양을 섭취하고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의약품으로써 가치에 회의가 제기되었다. 더구나 사회가 안정되어 갈수록 서양의약품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인삼을 포함한 식물성약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지금은 단순한 허브, 또는 식품원료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1994년부터는 [건강기능성식품 및 건강교육법]에 의해 영양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인체의 열을 내린다는 과학적인 근거나 정부의 인증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화기삼은 인체의 열을 낮춘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입증하였다기 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동양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지난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서서히 이루어져 온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의 화기삼이 언제 중국에 전래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화기삼의 효능주장 근거를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기삼의 발견과 중국과의 교역

청나라 강희제(1661~1722)는 서양선교사를 과감하게 고용하여 국가발전에 그들의 재주를 활용하였는데, 1711년에는 지도제작을 위해 예수회 자뚜(Pierre Jartoux)신부를 만주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 형태의 편지로 영국왕립학회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중국인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생’이라 부르는 타타르(만주)식물은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타타르사람들은 이를 ‘오르호타(orthota)’라고 하는데 식물 중 으뜸(chief of plant)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 식물이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다면 아마도 숲과 산이 이곳과 비슷한 캐나다일 것이다¹⁹⁾.

1716년 라피토신부는 캐나다에서 이로쿠스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고 있었는데 짧지만 상세하게 인삼을 묘사한 자뚜신부의 보고서를 읽었다. 그는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몬트리올 근처의 수젠크릭(Suzanne Creek Mission)주위에서 비슷한 중국 약초, ‘진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숲속을 찾아

¹⁸⁾서구 개척자와 인디언의 전통의약에 관한 상식이 결합한 사례가 *The American Indian Doctor: Dr. John Williams' Last Legacy, A Useful Family Herbal(1827)*에 잘 정리되어 있음. 여기서 삼은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하여 내상이나 폐양, 북통치료제 등으로 사용되었음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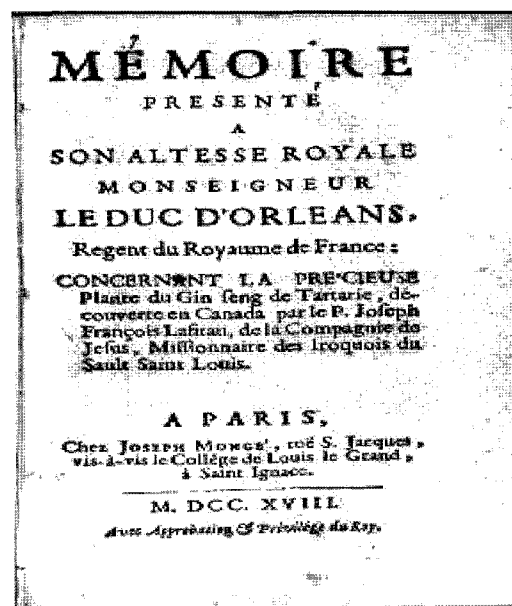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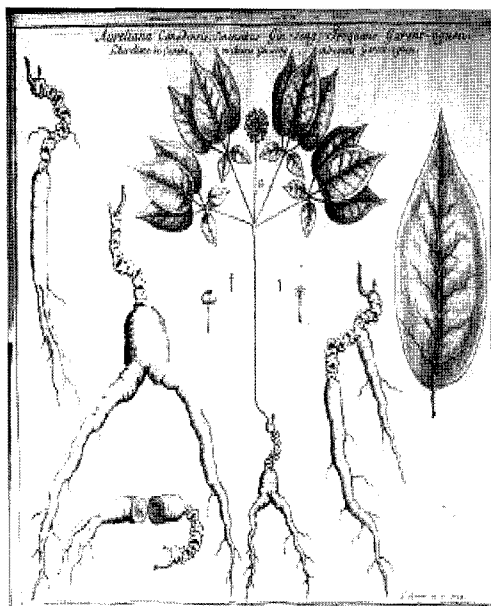
나섰는데 다음 기술은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삼을 찾으려고 3개월이나 소모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는데, 내가 짓고 있는 집 근처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 거의 우연으로 나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밝게 붉은 열매가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을 처음 본 순간에 나는 이것이 내가 찾고 있는 그 식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주저 없이 뽑아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 고용한 원주민 여자에게 기뻐하며 가지고 갔다. 그 여자는 그것을 그들의 고유한 약 중의 하나라고 즉시 인정하였고, 그것의 사용법을 설명하였다⁴⁾.

결국 자부신부에 의한 동양삼 그림은 1713년에 파리에서, 그리고 1714년에 런던에서 출판된 것인데 이를 기초로 캐나다의 라피토신부가 1716년에 ‘화기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⁴⁾. 캐나다에서 화기삼이 발견되자 프랑스나 영국 이주자들 사이에는 화기삼의 의학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동양에서 야생삼에 대해 엄청난 값을 지불한다는 소문이 인근 지역에 급속하게 퍼졌다. 결과적으로 1720년에는 캐나다에 야생삼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설립

되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걸을 수만 있으면 모두 야생삼 채굴에 매달리고 심지어 인디언들을 고용하여 채굴하기도 함으로써 화기삼은 이내 모피 다음 가는 중요한 무역품이 되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수확되고 잘못 건조된 뿌리가 중국으로 대량으로 선적되어 중국인들의 불만을 산데다 사시사철 과도하게 채굴한 나머지 야생삼의 씨를 말려 1750~‘60년 무렵에는 캐나다에서 야생삼 수출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⁵⁾.

캐나다의 야생삼 수출이 어려워지자 상인들은 남쪽의 영국 식민지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1757년부터 화기삼을 선적한 배들이 허드슨 강을 따라 내려가서 암스테르담과 런던을 오고 가면서 차와 화기삼을 교역하여 많은 이윤을 얻기 시작하였다. 독립전쟁 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간접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바뀌었는데 1790년대 초 4년 동안 해마다 14만 파운드 이상이 수출되었으며(American Botanical Council, www.herbalgram.org/default.asp?c=american_ginseng) 이 때 야생삼을 수집하기 위해 서부의 황무지개척의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다⁶⁾. 와싱턴대통령의 일기(1784. 10. 12)에 의하면



자료: Masarah Vaneyck, Ginseng, University of Minnesota (1999)

Fig. 2. The First Report on American Ginseng (1716).

⁴⁾사실 루이14세의 주치의인 사라신(Michael Sarrasin)이 1704년 캐나다 퀘벡 인근의 숲에서 이를 발견, 파리로 샘플을 보낸 것이 북미대륙에서 최초로 삼을 발견한 것임. 그러나 라피토와 자부신부로부터 얻은 지식을 기초로 북미대륙에서 화기삼 붐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흔히 라피토신부가 화기삼의 시조로 인정하고 있음⁹⁾.

⁵⁾1757년 무렵 캐나다에서 파운드당 25센트에 구입한 화기삼이 중국에서는 5달러에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생삼 채굴과 무역에 열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10, 16)}.

⁶⁾펜실바니아 서부지역의 탐험은 이 당시에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야생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어떤 지역의 야생삼 군락은 몇 에이커를 덮었고, 심마니들은 이를 몽땅 캐낼 때까지 그 중간에 캠프를 치기도 하였음. 오하이오토지회사(Ohio Land Company)의 조사관인 매튜(Mathews)는 1787년 9월 22일 일기장에서 오하이오의 무스킹검강계곡(Muskingum River Valley)에서 6일간 야영을 하면서 하루에 40~60 파운드의 인삼을 캐다고 기술하고 있음⁹⁾.

당시 아팔래치안 산맥 주변의 켄터키와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일대의 사람들은 야생삼을 채굴하여 옷가지나 신발, 소금 등 생필품을 구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며, 지금도 이 일대에는 Sang Branch(Fayette), Sang Camp(Logan), Seng Creek(Boone) 등 화기삼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다⁷⁾.

1798년 프랑스 식물학자 미슈(Andre Michux)가 야생삼의 과도한 채굴로 인한 멸종위기를 경고하였으나(Andre Michaux, Voyage a l'Ouest des Monts Allegheny, 1804) 야생삼 캐기는 1800년대에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야생삼무역의 절정기였던 1862년의 경우 622,761파운드의 건삼이 광둥과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혁명전쟁이 끝난 1780년부터 1900년에 이르기까지 12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건너간 건조된 야생삼이 약 2,000만 파운드에 달한다⁹⁾. 야생삼의 채굴은 계속되어 1890년 이후에는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일리노이, 그리고 캐나다의 온타리오는 멸종위기의 야생삼을 보호하기 위해 씨앗이 여물지 않은 봄과 여름동안에는 채굴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다⁹⁾.

늘어나는 수출수요와 과도한 채굴로 야생삼이 희귀해지고 제도적으로 채굴을 규제하자 심마니들은 이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재배자들은 어떻게 파종하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그늘막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그늘막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렸다. 1877년 위스컨신에서 화기삼 씨앗을 받아해서 기르는 시도를 하였으나 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이 무렵 뉴욕의 양철공이던 스텐튼¹⁷⁾이 화기삼 재배를 시도하였는데, 그는 1886년 '스텐튼중국삼농장(The George Stanton Chinese Ginseng Farm)'을 설립하고 그동안 경작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야생삼의 자연 서식지환경을 그대로 모방하여 마침내 재배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스텐튼의 성공을 기점으로 새로운 화기삼 붐이 일어났는데 1905년 뉴욕 트리뷴(New York Tribune) 기사를 보면 "그늘진 단 몇 스퀘어의 작은 땅에서 당신도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1900년대 초기에는 높은 노력비나 종자값, 각종 질병은 물론 투자 후 6~7년간 기다려야 하는 등 화기삼 재배의 속성을 모른채 무작정 화기삼농사에 참여한 대부분 소규모 경작자들은 도산하고 말았다.

그 후 펜실바니아와 미시간 주의 농업국에서는 화기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생산자들과 정보를 교류함에 따라 1912년까지는 약 150에이커의 화기삼을 재배하기에 이르렀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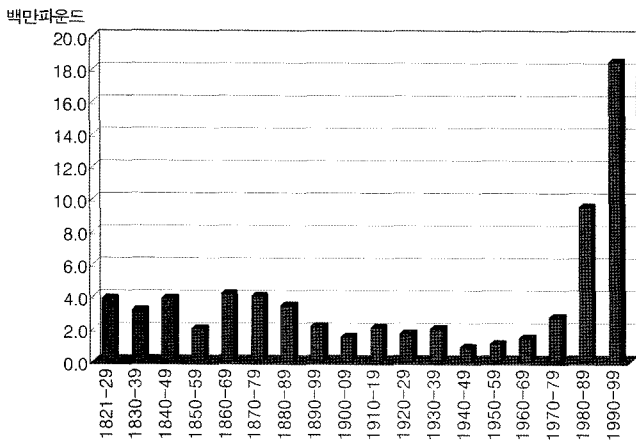
인들의 지나친 광고로 화기삼 가격은 들쭉날쭉했지만 중국의 수입수요는 지속되었다. 뉴욕의 국제인삼회사(International Ginseng Company)와 David Blaustein, 신시네티의 Samuel Wells, 시카고의 Becker Brothers와 같이 동양과 강한 유통망을 가진 대규모 회사들이 화기삼과 함께 모피, 벌꿀, 깃털 등을 교역하였는데 1922년 뉴욕의 윌리엄베너사(William Boehner & Co.)의 대리인은 위스컨신의 대규모 경작자인 프롬형제들에게 재배한 화기삼 구입을 위해 무려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화기삼 재배는 다음 세기 동안 부침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는 마름병과 같은 질병과 해충, 도둑은 물론 1930년대의 대공황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이 중국의 해안가를 점령해 중국 본토로 수출을 못하게 되자 위스컨신 동부, 주로 뉴욕, 펜실바니아, 오하이오와 인디애나의 화기삼 경작자들의 대부분은 사업에서 탈락하고 위스컨신의 마라톤 카운티 주변 몇몇 대규모 경작자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6.25 동란으로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이 어려워진 1947년부터는 미국의 야생삼과 재배삼 수요가 해마다 25~30% 증가하게 되었다. 수익이 나지 않았던 지난 8년간을 잘 견디어 낸 위스컨신의 경작자들은 미국 재배삼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재배삼의 대부분을 생산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상화로 화기삼의 중국수출이 재개되자 미국에서는 화기삼 생산 및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76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이후에 인삼과 인삼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화기삼은 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최근 중국에서 화기삼의 대량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미국은 화기삼의 수출을 유럽이나 남미 등으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¹³⁾.

1821~1999년 기간 중 화기삼의 수출량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해마다 약 6.5톤 정도의 야생삼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는데 점차 늘어나 1858년에는 163톤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채굴에 따른 자원고갈로 180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절반이하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1900년대 초 재배에 성공하여 1920년대에는 다시 수출부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연이은 대공황과 2차 대전, 중국과 단교 등으로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1970년대 중반 중국과 다시 수교한 이래 1980년대부터 화기삼 수출이 본격화되고 그 후 재배삼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¹²⁾.

¹⁷⁾ 그 후 스텐튼은 여러 해 동안 뉴욕 주 화기삼협회회장을 맡아 1903~1935 기간 중 화기삼잡지(Ginseng Journal, 나중에 Special Crop으로 개칭)를 발간하여 경작자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등 화기삼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음. 1908년 1월 31일 죽게 되자, 동료들에 의하여 '미국삼산업의 아버지(Father of the Ginseng Industry)'로 존경 받게 되었음¹⁾.



자료: USDA/FWS, www.fws.gov/international/ginseng/ginsneg%20fws.ppt (2004).

Fig. 3. American Ginseng Export Trends; from United States to China (1821~1999).

화기삼은 정치, 문화적으로도 미국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즉 1770년대 초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대중국 화기삼 무역은 영국의 ‘소버린크라운(Sovereign Crown)’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회사가 막대한 중간이득을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은 독립을 위한 싸움에서 신생국가로 가는 받침기둥이 되도록 도왔고, 화기삼 무역은 또한 실제 전쟁에 필요한 자금원^[8]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이주자들이 야생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광대한 미국 서부의 황무지를 탐험^[9] 하는데 앞장을 섰다. 오늘날 미국의 화기삼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고, 수많은 현대 질병의 치료에 대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6].

미국은 1975년 야생삼을 CITES에 등록하고 1999~2005년 기간에는 5년 미만을, 그리고 2005년 9월부터는 10년 미만의 야생삼 수확 및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자원을 보전하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거의 전량 야생삼을 수출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재배삼의 증가로 2004년 현재 전체 미국 화기삼 수출량의 약 20%를 야생삼이 차지하고 있다.

맺는 말

미국대륙에서 화기삼이 발견된 것은 1716년 무렵이다. 당시

에도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만병통치약처럼 종족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야생삼의 인공재배에 성공한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인삼이 워낙 귀한 물건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채취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인삼에 대한 이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화기삼의 효능에 대한 주장도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특히 5천년 역사를 가진 동양삼에 미루어 볼 때 화기삼의 효능에 대한 중국인들의 주장^[10] 역시 임상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화기삼의 효능에 대한 나름대로 임상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인삼을 보편적으로 맛을 보고 나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인 들이 믿는다는 화기삼에 대한 청열효과의 근거는 어떻게 연유된 것일까? 연구과정에서 떠 오른 한 가지 가설은 홍삼과 백삼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본초강목(1596)을 쓴 이시진의 아버지 이언문에 의하면 “인삼은 원래 그 성질이 찬데 이를 찌거나 홍삼으로 만들면 본성이 따뜻해진다”고 하고 “약간 단맛은 양을 강하게 하고 이는 상승하는 본성을 가진다. 반대로 쓴맛은 음이 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몸의 기운을 낮추는 본성을 가진다”는 주장^[13]이나 “전통적인 중국의학에서 홍삼은 양, 승열(warming), 활력증진(energizing), 자극촉진(stimulating), 비장과 심장, 폐에 작용하고, 백삼은 음, 냉각(cooling), 조용하고(calm-ing) 부드럽고(softening), 지양분을 주며(nourishing), 심장과 폐, 콩팥에 작용하며, 화기삼은 백삼과 같다^[5]”는 인용에서 고려인삼의 승열효과나 화기삼의 냉각효과가 홍삼과 백삼의 차이를 설명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화기삼의 냉각효과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중국의 음양설을 언급하고는 본초강목의 인삼효능을 소개한 뒤 바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화기삼이 열을 낮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 화기삼이 중국에 알려진 것은 겨우 280년 전이며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기삼은 별도의 효능을 가진 상품이 아니라 부족한 동양삼을 대체하는 같은 상품그룹의 열등재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즉 1971년 홍콩시장에서

^[8]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화기삼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1775~1783 기간에 벌어진 미국 혁명전쟁에서 상당부분의 군자금을 삼거래를 통해 조달하였다고 함^[6].

^[9]다니엘 분(Daniel Boone: 1734~1820)도 야생삼을 채굴하여 중국과 교역함으로써 아팔래치안산맥 일대의 미국 영토를 확장하고 개인적으로는 재산을 모은 사람임. 당시 야생삼을 채굴하면서 켄터키, 미주리 등을 개척한 공로로 먼로(James Monroe)대통령으로 부터 850에이커의 미주리 땅을 상으로 받았다고 함^[6].

^[10]서양삼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補圖草木備要, 本草綱要拾遺 등에 기재된 서양삼은 음을 보하고 열을 내려 남부지방에서 여름철 보신용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려삼은 大輔元氣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위급시에 주효하고, 서양삼은 補養補氣, 清熱清火의 기능이 있어서 평상시 보신용으로 먹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미국 야생삼 가격은 고려백삼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 되었으며 재배한 화기삼은 거의 20~30%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화기삼이 새로운 품종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FDA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효능을 추가로 발견한 것도 없기 때문에 동양삼과 화기삼의 가치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홍삼과 백삼의 차이를 바탕으로 왜곡,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정부는 한 때 화기삼을 건위제와 흥분제로 공식 약전에 등재하여 의약품으로 관리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1994년부터는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교육법]에 의해 FDA의 허가없이 신체구조 및 기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당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삼을 복용하십시오”란 기능효과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FDA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고, 특정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다”란 면책선언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인체의 열을 내린다는 의학적 효능을 미국 FDA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시장은 물론 홍콩이나 중국에서 까지 화기삼이 물량이나 가격면에서 인삼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화기삼이 열을 내리는 것은 전략적 마케팅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결정은 소비자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전에 소비자들의 믿음을 바꾸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중국은 1974년 과학기술위원회와 위생부, 중국제약그룹이 공동참여하여 [7519공정]이란 서양삼프로젝트를 추진, 80년대에는 재배에 성공하고 1988년 4월 위생부의 비준을 받아 수입화기삼과 함께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기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함께 세계적인 서양삼 붐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다.

인용문헌

1. A.R. Harding, *Ginseng and Other Medicinal Plants* (1936).
2. Argus *et al.* : *North American Ginseng Distribution*, (1982~'87).
3. Charles A. Brun: *On-line Guide to Ginseng Production in the Pacific Northwest* (1999).
4. Father Jartoux: *The description of a Tartarian plant, called ginseng; with an account of its virtues*, Royal Society of London, *Philosophical Translations* 28: 237-247 (1914).
5. Jacques MoraMarco, *The Complete Ginseng Handbook*, Contemporary Books (1997).
6. Kim Derek Pritts, *Ginseng: How to Find, Grow and Use American Forest Gold*. Stackpole Books, pp.19-28 (1995).
7. Mary Hufford, *American Ginseng and the Idea of the Commons* (1997).
8. Masarah Vaneyck: *Ginseng*, University of Minnesota, (1999).
9. Sarah Harriman, *The Book of Ginseng*, p.67, A Jove/HBJ Books (1973).
10. Scott Harris: <http://asianresearch.org/articles/1438.html>
11. Stephen Fulder: *Ginseng, The Magical Herb of the East*, pp.14-17 (1988).
12. Steven Foster, *American Ginseng*, www.Herbalgram.org, (2005. 2).
13. Subhuti Dharmananda, 2000, <http://www.itmonline.org/arts/ginseng.htm>
14. *The American Indian Doctor: Dr. John Williams' Last Legacy, A Useful Family Herbal* (1827).
15. USDA/FWS: www.fws.gov/international/ginseng/ginsneg%20fws.ppt (2004).
16. Waters, <http://asianresearch.org/articles/1438.html> (2005).
17. Winifred Conkling, *Secrets of Ginseng*, p.18, St.martine's Paperbooks (1999).
18. 홍콩정부: *Hong Kong Census & Statics Department* (2005).